

## 화분(花盆)

봄은 아직도 몇 천 리 밖에 있는 줄로만 알고 꿈에도 꾸지 않고 있던 달팽이다(《열은 봄》). 이런 소리를 들었는지라 놀랍고 반가움에 이불을 차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아직도 몇 천 리 밖을 걸어 오는 줄로만 알고 있던 봄물결이 벌써 내 발목을 잠겼다니 이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 아니냐?

영하 17도 속에서 봄물결 소리를 들은 편집 선생의 실로 놀라운 육감에 감탄하기 오래다가 나도 어디 봄소리를 들어 보자고 계절을 완전히 차단할 양으로 벽에 건 방장을 걷고, 새우등을 하고 손을 훌훌 불며 뜰로 나갔다. 툇마루에 햇빛이 아롱댄다. 이것이 봄소식이냐? 가시나무 앞에 조는 달팽인냥 팔장을 끼고 도사리고 앉았다. 그러나 바람이 뺨을 꼬집는다. 털버선 밑으로 고무신이 차다. 어째서 고양이와 봄벌을 찾아와 나의 손을 핥지 않는 것이냐?

나는 문득 부엌 한 귀에다 몰아 넣어둔 화분 생각이 났다. 화분이라야 석류, 옥잠화, 난초, 수국, 백년초, 겨우 보잘것없는 다섯 개다. 그러나 가난한 우리 마당이라, 다섯 개 보잘것없는 화분으로도 넉넉한 장식 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남이 손질하여 키워놓은 것을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 석류와 백년초는 가지를 꺾어다 뿌리를 붙인 것, 옥

잠화는 뿌리를 캐다가 심은 것, 수국과 난초는 벗의 고운 뜻으로 얻어 받은 것이어서 별다른 정이 붙었고, 또 두고두고 키우고 가꾸어 가며 재미를 보자고 소중히 여겨온 것이다.

다섯 개 화분을 하나하나 뒷마루에 옮겨 놓고 바람을 막아 앉았다. 백년초가 얼어 허리가 부러졌다. 봄입김이 아무리 파스하게 불어 주어도 눈을 뜰까 싶지 않다. 봄에 잠기려던 옥잠화 눈(菊)이 따글따글 청옥 같이 얼어 내 손바닥에 굴러 떨어진다. 석류가지를 꺾어 보니 파란 껍질이 매어달린다. 대단히 잠이 늦은 놈이거나 잠을 흔들지 말자. 옥잠화 뿌리를 더듬어 보려니 돌덩이같이 얼은 흙이 손톱 밑을 할킨다. 영하 17도 찬 바람을 들여 보내지 말자. 난초 속잎은 아직도 파릇파릇 싱싱하다.

내 고향 뒷동산에서 울던 부엉이 소리가 그치면 나는 어머님과 할머니를 따라가 작년 가을 굳게 닫아 둔 채로 있는 텃밭 문을 열었다. 그러면 언제나 동산 밑으로 높은 곳 바위배기에 연연한 봄빛이 와서 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봄별에 포근히 안겨 바위 틈새에는 돛나물이 가랑잎에 묻혀 머리만 내어놓고 조을고 있다. 어머님과 할머니이 마늘을 덮은 짚을 벗기면 나는 돛나물을 덮은 가랑잎을 손가락으로 헤치며 저도 모르게 콧노래를 부르다 조을곤 했다.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신 후로는 할머니를 따라가 즐겼다. 생장하며 돛나물 맛을 익혔다. 타관에 가 나이를 먹고 봄에 돌아오면 나는 할머니 주머니에서 열쇠를 내어 누구보다도 먼저 이 텃밭 바위배기를 찾아가 돛나물의 가랑잎 이불을 벗겨 주었다. 재작년 할머니이 돌아가시던 해 이 텃밭도 우리집 소유에서 떠났다. 이제 이 터에 집이 섰다니, 봄별이 한가로이 돛나물과 희롱할 수 있을거냐? 자라며 고향을 찾는 내 발도 뜨거니와 고향엘 가더라도 바위 틈에 봄을 느끼던 내 오랜 습관을

밟을 수 있겠나.

난초 앞에  
적은 바람이 오다.

난초 앞은  
칩다.

문득 나는 꿈길에서 깨었다. 난초 앞이 돛나물이요, 뒷마루가 바위배기였다. 그러나 바람이 맵다. 햇별이 차다. 난초앞이 얼었다. 내 손이 감각을 잃었다. 아직도 이 봄이 이른가 보다.

나는 화분을 좁다고 거절당했던 방안 옷묵으로 들어왔다. 언손을 요 밑에 녹이며 난초앞을 바라보고 놀았다. 이날부터 우리 집 옷묵은 봄그림자가 하늘거리는 바위배기다.

(《조광》, 4권 3호, 1938. 3. 1)